

화려한 색상의 반응성 염료(3)

파는 표준타수라는 의미로, 파 4의 홀을 4타(티에서 그린의 컵에 볼을 넣기까지 4회 치는 것)로 들어가는 것을 “파를 취한다”고 한다. 그리고 파보다 하나 많은 타수로 들어가는 것을 보기, 반대로 하나 적은 타수로 들어가는 것을 버디라 하며, 둘 적은 타수로 들어가는 것을 이글이라 한다. 이와 같은 말로 경기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나타내어진다.

골프 역사에서 프로선수 제1호는 영국의 A.로버튼슨이다. 그는 세인트앤드루스(Saint Anderws)에서 볼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았는데, 경기 기술도 뛰어나서 사상 처음으로 18홀에서 70대의 스코어를 기록하였다. 로버튼슨의 후계자 T.모리스는 “프로의 아버지”라고 일컬었으며, 그의 아들인 영 톰을 명선수로 길러 무패의 전적을 올리게 하였다.

영국에서의 황금기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였고, 그것은 해리바든(Harry Vardon), J.브레이드, 테일러(H.Tayler) 등 3사람의 힘이 컸다. 이들은 “위대한 3거두”로 일컬었으며, 1894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 때인 1914년까지 20년 동안 영국 오픈선수권대회를 거의 장악하였다. 특히, 바든은 근대 골프의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고 오버래핑 그림을 창안하여 스윙 폼에 하나의 기준을 세웠다.

20세기에 미국 골프계는 영국에 육박하여, 월터 트래비스가 영국에 원정하여 1904년 영국 아마추어선수권대회를 재패하였고, 13년 US오픈선수권대회에서는 무명의 젊은 아마추어인 F.윗멧이 영국의 제1인자 바든을 물리쳐 우승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한 공백기에 미국의 골프계는 현저한 성장을 보였으며, 월터 헤이건(Walter Hagen)이 영국 타이틀을 쟁취함으로써 사실상 영국의 황금시대는 지나고 미국은 제1기 황금시대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선수가 월터 헤이건, 진 사라젠, 보비 존스(Bobby Jones)의 세 사람이다. 특히 보비 존스는 1930년 당시 28세의 젊은 나이에 아마추어이면서도 세계의 메이저 경기, 즉 미국과 영국의 2개의 오픈대회와 2개의 아마추어 선수권대회의 우승을 1년간에 따내는 불멸의 위업 그랜드슬램을 이룩하였다.

1923~1930년에도 이들 4대 주요대회에서 13번 패권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잭 니클라우스가 미국 및 영국의 오픈선수권 및 미국의 PGA대회와 마스터스 대회 등을 석권하며 총우승 횟수를 앞지른 1973년까지 누구도 필적할 수 없었던 대기록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의 독무대로, 바이런 넬슨(Byron Nelson), 샘 스니드(Samuel Snead), 벤 호건(Ben Hogan)의 세 사람이 이를 뒷받침하였고, 1970년대에는 “빅 스리”라는 호칭이 미국의 아놀드 파머(Arnold Palmer), 잭 니클라우스(Jack Nicklaus)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게리 플레이어(Gary Player) 등에게 주어졌다.

이들을 추격하는 골퍼로는 리 트레비노, 톰 왓슨(Tom Watson), 조니 밀러 등이 있었고, 1990년대에 두각을 나타낸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레그 노먼, 영국의 닉 팔도, 독일의 베른하르트 랑거, 짐바브웨의 닉 프라이스 등이 미국의 기수인 프레드 커플스, 데이비스 러브 3세, 톰카이트는 물론 일본의 아오키 이사오[青木功], 오자키 마사시[尾崎將司] 등을 크게 앞질렀다.

1996년 pga 신인상을 받은 타이거 우즈(Tiger Woods)는 그 뒤 여러 대회를 휩쓸어, 그의 등장은 프로골프사의 대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2000년 8월 17일 미국 켄터키주(Kentucky) 루이빌(Louisville)의 벨헨러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82회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함으로써 US오픈과 영국 오픈선수권을 차례로 제패하여 최연소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였다. 그는 한해 동안 벌어지는 4차

레 메이저대회 가운데 3개를 석권한 1953년의 벤 호건에 이어 트리플 크라운(3관왕)을 석권한 두 번째 선수가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대선수인 타이거 우즈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 나라 선수로는 2001년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박세리 선수를 엿보기로 한다.

우즈(Woods, Eldrick Tiger) [1975~]는 미국의 프로골프 선수로, 캘리포니아주 (California) 사이프레스에서 1975년 12월 30일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그린베레 출신의 예비역 육군 중령인 얼 우즈이고, 어머니는 타이 출신의 켈리다 우즈이다. 베트남전쟁에 출전한 아버지 친구의 이름을 따서 보통 “타이거”라는 닉네임으로 부른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골프를 배워, 16세 때인 1991년에 이어 1992~1993년 연속으로 미국 주니어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여 1984년의 매리루 리턴 이래 처음으로 3년 연속 우승의 기록을 세웠다. 이어 1994년에 US 월드 아마추어, 1995년 위커컵, 1997년 리더컵 대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하였다.

1996년 스탠퍼드대학교 경제학과 3년을 중퇴하고, 프로로 전향하여 같은 해 처음으로 PGA투어로 참가하였으며, 라스베이거스 인비테이셔널, 월트 디즈니 월드/올즈 모빌 클래식에서 우승을 거둠으로써 PGA 투어 1996년의 신인상을 받았다. 1997년에는 PGA의 메르세데스 챔피언십, 마스터스 토너먼트, GTE 바이런 넬슨 골프 클래식, 모터올라 웨스턴 오픈을 제패함으로써 프로골프계를 뒤흔들어, 그의 등장은 프로 골프사 대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1998년에는 PGA 벨사우스 클래식에서 우승하였고, 국제대회에서는 1997년 아시안 혼다 클래식, 1998년 조니워커 클래식을 제패하였다. 또한 닛산 오픈 2위, 메르세데스 챔피언십 공동 2위, 브리티시 오픈 챔피언십 3위, 뷰익 인비테이셔널 공동 3위, 스피리트 인터내셔널 공동 4위 등에 올랐다.

1999년에는 뷰익 인비테이셔널, 메모리얼 토너먼트, 모토올라 웨스턴 오픈, PGA 챔피언십, WGC NEC 인비테이셔널, 내셔널 카 렌탈 골프 클래식/디즈니, 투어 챔피언십, WGC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였다. 2000년 메르세데스 챔피언십, AT & 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 베이 힐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장타에 능하다.

2000년 8월 17일 미국 켄터키주(Kentucky) 루이빌(Louisville)의 벨헬러 골프 클럽에서 열린 제82회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함으로써 US오픈과 브리티시 오픈을 차례로 제패하여 최연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그는 한해 동안 벌어지는 4차례 메이저 대회 가운데 3개를 석권한 1953년의 벤 호건에 이어 트리플 크라운(3관왕)을 석권한 두 번째 선수가 되었다. 이 대회는 지난 1936~1937년의 데니스 슈트 이후 2연패에 성공한 선수가 전혀 없어 그가 이러한 징크스를 깨뜨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다.

또한 US오픈에서 106년 역사상 처음으로 두자릿수 언더파(12언더파)와 역대 최다 타수차(15타) 타이기록을 세웠고, 브리티시 오픈에서는 역대 메이저 대회 최저타 우승기록을 잇따라 수립하였다.

그리고 대한의 딸 박세리(Park Se Ri) [1977.9.28~]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프로골프 선수로써 1977년 9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태어났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여자 프로골퍼이다. 유성초등학교, 갈마중학교, 공주 금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89년 유성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골프를 시작하였다. 공주 금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95년 프로 아마추어가 함께 출전하는 오픈대회를 4개나 석권하여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1995년 8월 프로 데뷔 첫 대회인 동일레나운 레이디스 클래식 골프대회에서 우승하였으며, 18세 10개월 26일의 최연소 우승기록을 세웠고, 필라 오픈 골프선수권대회와 SBS 프로골프 최강전마저 석권해 국내 골프 사상 첫 3주

연속 우승의 대기록을 수립하였다.

그 해 국내대회에서 우승 4회, 준우승 6회, 평균타수 1위(70.79타), 상금랭킹 1위, 역대 최고 상금 기록, 최연소 우승 등 많은 기록을 세우며 한 해 동안 7억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려 국내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 중에서는 최고 수입을 기록하였다.

미국 플로리다주(Florida) 올란도(Orlando)에서 세계적인 골프 교습가인 데이비드 리드베터(David Leadbetter)에게 개인지도를 받았으며 1997년 10월 LPG(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에 입문하였다.

1998년도 미국 LPGA에서는 메이저대회인 LPGA 맥도널드챔피언십(McDonald's Championship)과 U.S. 여자오픈에서 우승하였고, 제이미 파 크로거 클래식(Jamie Farr Kroger Classic)과 자이언트 이글 클래식(Giant Eagle Classic)에서도 우승하는 등 총 4개 대회에서 우승하여 올해의 신인상을 차지하였다. 그밖에 시즌상금 2위(872,179달러), 평균타수 13위(71.41타수), 드라이버 거리 18위(249.9야드)를 기록하며 올해의 선수부분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1999년에는 총 27개 대회에 출전, 23회 예선을 통과하여 LPGA 샵라이트 클래식(Shoprite Classic), 제이미 파 크로거 클래식, 삼성 월드챔피언십(Samsung World Championship) 등 4개 대회에서 우승하여 올해의 선수부분에서 3위를 기록하였다. 그밖에 총 상금 3위(956,926달러), 평균타수 8위(70.77타), 드라이버 거리 9위(256.1야드)를 기록하였다.

주무기는 드라이브 샷이며,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1998년 11월 체육훈장 맹호장을 수상하였다. 현재 계약사는 삼성물산(주) 아스트라이다.